

인도

인도 중앙은행, 금리 인상 사이클 진입

- 기준금리 25bp 인상 및 긴축 기조 전환으로 12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확대
- FY27년 경제성장률 및 물가 전망 동반 상향, 금리 인상 폭은 2022년 대비 제한적일 전망
- 금리 상승에 따른 단기 증시 변동성 확대 가능성, 중장기 투자 매력 유지 속 실적 중심의 차별화 장세 전망

기준금리 25bp 인상, 12월 추가 인상 가능성

인도 중앙은행은 10월 7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한 5.50%로 결정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시장 예상에 부합했으나, 통화정책 기조를 기존 '중립(Neutral)'에서 '점진적 긴축(Calibrated Tightening)'으로 전환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인도 중앙은행은 당분간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고, 향후 경제성장률과 물가 흐름을 고려해 추가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금리 인상은 건조한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를 반영한 결정이다. 인도 중앙은행은 FY27년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6.7%에서 7.1%로 상향 조정했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5.0%에서 5.2%로 높였다. 내수 회복과 은행 신용 증가세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나, 국제유가 상승과 몬순 강수량 부진에 따른 식품 물가 불안이 물가안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 중앙은행은 건조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물가안정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통화정책은 국제유가와 식품 물가의 움직임, 국내 경기 흐름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의 물가 전망과 인도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를 고려할 때 시장에서는 12월 추가 25bp 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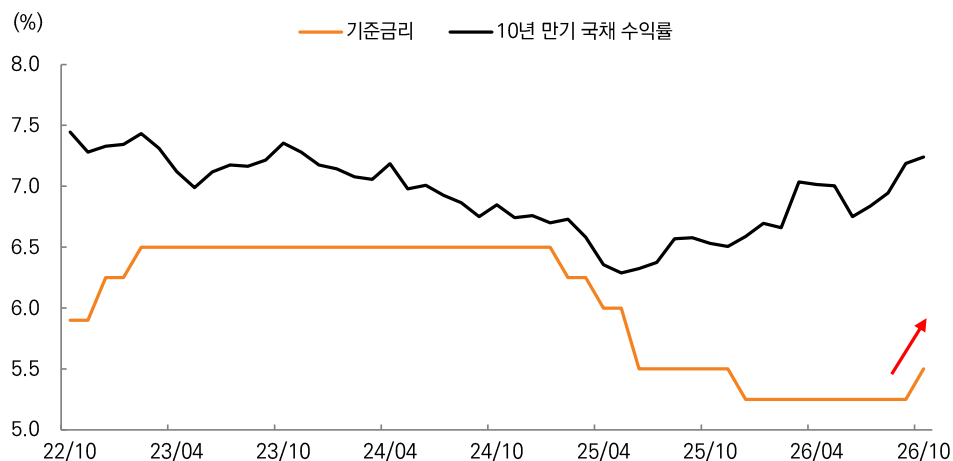
2022년 대비 완만한 금리 인상 전망

2022년 시작된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는 국제유가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도 중앙은행이 2023년 2월까지 기준금리를 누적 250bp 인상한 바 있다. 이번에도 엘니뇨에 따른 식품 물가 상승 우려가 존재하지만, 당시와 달리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금리 인상 폭은 2022년보다 작을 것으로 전망한다.

단기 변동성 확대 속 종목별 차별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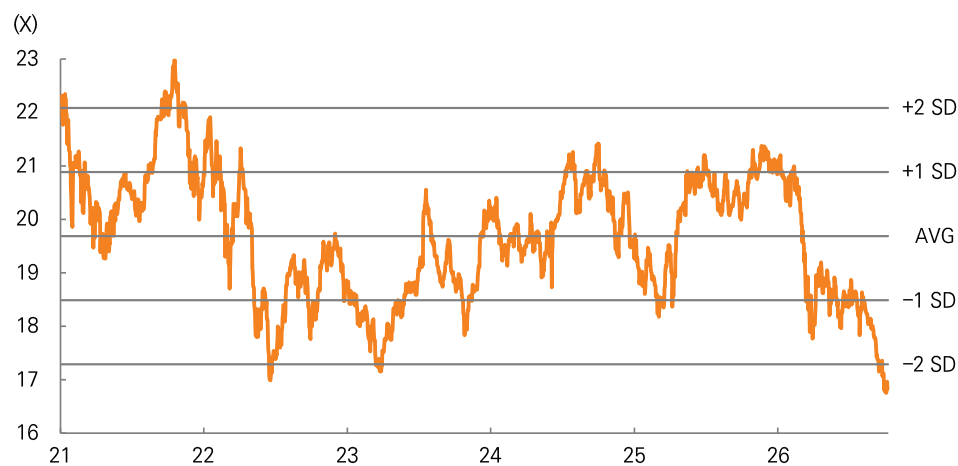
주식시장에서는 금리 상승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이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인도 경제의 건조한 성장률과 기업이익 증가 흐름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인 투자 매력은 유지될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지수의 강한 반등보다는 실적 가시성이 높은 업종과 종목을 중심으로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그림 1. 인도 기준금리 및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추이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Nifty 50 P/E 밴드 차트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